

연중 제32주일 복음 나누기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루카 20,38)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루카 20,27-38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28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만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30 그래서 둘째가,
31 그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곱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2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33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34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35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 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36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37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 주었다.
38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사두가이들은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개념조차도 없는 이들입니다. 복음은 이런 이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은 이들이 부활한 세상은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부활한 이들은 우리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 일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거나 지금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가이들의 질문은 근본부터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두가이들에게 부활한 이들은 결혼하는 일도, 죽는 일도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해주십니다(35절). 부활한 세상에서는 부모, 자녀, 형제, 부부 등의 관계보다는 ‘하느님’과 ‘나’라는 일대일의 관계로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36절).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조들과의 계약의 관계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계시며 죽음이 이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향해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목숨이 끊어져 죽은 것처럼 보이나 하느님 편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처럼, 신앙의 선조들이 그 후손들이 보기에는 비록 죽을 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다소 어려운 표현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그들은 하느님께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들은 부활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이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시적인 삶 속에서 절대 가치를 찾으려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시련과 아픔이 주어진다면 우리 너무나도 쉽게 몸을 움츠리고 도망하기 일쑤이며, 하느님 아닌 그 어떤 것에 매달려 고통이 비껴가기만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죽은 것이고 무엇이 산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의 완전한 귀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너’를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희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사악도 야곱도 그분 안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